

##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 교만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

신원하(고신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 논문초록

일반적으로 ‘교만(pride)’은 자부심, 자존심이라는 가치중립적인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만한 태도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교만’을 지극히 부정적으로 취급해 왔다. 단순한 윤리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심각한 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성경과 기독교회 역사가 이해한 교만의 의미와 성격을 성경과 교회전통을 통해 분석한다. 교만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난 자기 높이기이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다스려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를 기만하고 때로는 자기에 도취되기도 하면서 결국 자신을 참된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소외시킨다. 교만은 스스로를 자신의 성안에 가두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방해한다. 그래서 교만은 그 어느 악보다 공동체를 더욱 파괴하는 치명적인 악이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중심에 서고 박수를 받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헛된 영광과 유사하나 자기 자신에게 더 몰두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교만과 달리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교만을 벗어나 겸손에 이르는 길은 우선 자기의 실상을 정확히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에서 가능하다. 수도원 전통의 ‘거룩한 책읽기(Lectio Divina)’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해, 신자들은 겸손을 조금씩 배우고 익혀갈 수 있다.

**주제어 : 교만, 라인홀드 니버, 자기기만, 나르시즘, 겸손**

---

2009년 11월 7일 접수; 12월 2일 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I. 서론
- II. 교만의 의미: 자기 높임과 하나님처럼 되기
- III. 자기기만, 나르시즘, 그리고 관계 파괴
- IV. 영적 교만: 가장 위험한 교만
- V. 교만과 헛된 영광(vainglory)
- VI. 자기실상 바로 보기와 거룩한 책읽기(Lectio Divina)
- VII. 자아 비우기와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신 모델
- VIII. 겸손에 훈련터로서 신자의 공동생활
- IX. 결 론

## 1. 서론

교만(pride)의 사전적 의미는 '강한 자존감이나 자부심(옥스포드)', 혹은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갖고 있거나 성취한 것으로 인해 생기는 강한 만족감 혹은 즐거움(웹스터)'이다. 즉, 단어 자체만으로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가치중립적이거나 오히려 긍정적 의미가 더 강하다. 이 말이 나라의 앞에 붙어서 '아메리카 프라이드', '중국 프라이드'와 같이 쓰이면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또는 인종 앞에 붙어서 '화이트 프라이드', '블랙 프라이드'처럼 쓰이면 인종에 대한 자부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Dyson, 2004: 45-84). 이처럼 국가, 인종, 학교, 문화 등과 함께 쓰이면서 그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긍정적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 철학이나 신화에서 교만은 거의 지배적으로 부정적 함의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연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말한다.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에 올라가 불을 훔쳐 인간 세상으로 가져왔고 인간에게 몰래 전해 주었는데, 천상의 신 제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진노해 질병이 가득 찬 상자를 인간 세상에 보냈다는 것

이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기 시작한 원인을 교만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교만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취급을 한 사상은 무엇보다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첫 인간인 아담이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맞이했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야고보서 4:6),"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언 16:18)"이다. 교만하다가 결국 몰락한 수많은 왕과 인물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한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교만을 단순히 하나의 악(vice)으로 보지 않고 '악 중의 악'이요, 다른 악들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죄(capital sin)'로 취급해 왔다. 교회 역사에서 4세기 사막 수도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레고리를 거쳐 로마 카톨릭의 주요한 윤리적 교리로 자리 잡은 것 중의 하나가 '일곱 대죄' 교리인데, 이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정욕 등이다. 이 목록 가운데서도 교만은 으뜸 되는 죄로 취급되어 왔다(신원하, 2009: 133).

신자들은 교만에 관련한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주요한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경고하는 만큼 교만을 치명적인 죄로 여기며 살아기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신자들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단순히 수사 내지 강조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교만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건에 미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을 각성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 즉, 이 논문은 교만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그것이 낳는 파괴적인 결과를 파헤치고 분석함으로써 신자들이 이에 대해 깨닫고, 나아가 이것에 대처하는 실제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II. 교만의 의미: 자기 높임과 하나님처럼 되기

자기 능력을 과평가하거나 자신에 대한 과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늘 깔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흔히 "오만하다", 혹은 "교만하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교만을 단지 과도한 자부심 정도로 이해하지 않는다. 교만이 그런 정도의 악이었다면 '가장 큰 죄', '모든 죄의 뿌리' 라는 극한 표현으로 교만을 칭하지 않았을 것이다.

### 1. 자기 높이기

교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위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곧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상태로 나아간다. 그렇기에 교만은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들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 기독교 전통이 교만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고 주장했다.<sup>3)</sup>

그레고리는 교만이란 "자신의 생각을 더 중시하고 그에 갇혀 판단하고 행하

3)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마땅히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특징에서 헛된 영광 혹은 허영(vain glory)이라는 악이 나오게 된다. 자기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대접하지 않으면 분노(anger)하게 된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게 되면 마음이 쓰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쫓겨 내리고 싶어 하여 시기( envy)를 낳는다.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재물과 권력을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탐욕(avarice)도 교만의 딸인 셈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 또는 남자를 차지할 가치를 더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행(lust)의 죄도 범하기 쉽다. 이처럼 일곱가지 대죄와 악들은 결국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뻗어 나온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 1, 540-604)는 교만을 "모든 악의 뿌리" 이자 "모든 죄의 여왕" 이라고 했다.

기를 즐기고 나아가 자신을 높이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Gregory the Great, 1884: XXIV, 48). 질병이 몸에 퍼져 전체를 마비시키듯이 교만은 "영적인 암"으로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해서 죽게 하는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했다(Gregory, 1844: XXXI, 44, n. 87). 로마 카톨릭 신학의 토대를 놓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74)도 교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자기를 높이 두는 것"으로 이해했다(Aquinas, 2005: 329).

이처럼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실제로 우쭐거리는 교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인종, 민족, 집단, 문화, 국가 등에서도 작용한다. 특정한 인종, 문화, 국가가 지닌 교만은 다른 민족, 인종, 나라, 문화 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선민의식을 낳는다. 소위 강대국과 서구 선진 국가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 관계에서 왜곡된 형태로 작용할 때가 많다. 때로는 다른 약소국들의 판단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자신들의 힘에 도전하는 것을 관용하지 못한다. 심리학자 쉘멜(Solomon Schimmel)은 1990년 1차 걸프전이 발발한 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지도자들의 교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분석을 비중 있게 인용했다(Schimmel, 1992: 28). 아랍 제국의 자존심 회복을 선언하며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비호를 받던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과 부시 정권은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이 공격에는 중동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다는 명목이 있었지만, 미국이 과도하게 공격한 실제 이유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반발하고 번번이 미국에 대항하며 자존심을 훼손해 온 이라크를 응징하여,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교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분석은 실제로 국가적인 교만이 국제 분쟁이나 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피조물의 한계 넘기와 하나님처럼 되기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거나 문명의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경우, 우쭐하여 자기를 높이 두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자신감이 확대되면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여 자기 힘과 마음대로 자신과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다.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Evagrius of Pontus, 345-399)는 말하기를,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했다. 그런 욕구는 결국 최고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vagrius, 2003: 65). 에바그리우스는, 마귀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 위에 앉고자 하는 환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런 환상을 품는 교만을 가리켜 “높아지려 하는 영혼”이라고 칭했다.

서방교회에 동방 수도원 전통을 소개해주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수도사 카시안(John Cassian, c. 360-435)도 역시 교만의 본질을 마귀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이사야 14:13-4).

카시안이 마귀는 자기를 지극히 높이 올려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야망을 가졌다고 설명하며, 바로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라고 보았다(Cassian, 1997: 87).

초대교회 교부 중 어거스틴(354-430)은 교만을 “두드러지려고 하는 야심(desire for perverse eminence)”이요 “최고에 이르려는 굴절된 욕망(perverse desire of height)”이라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면 잘못된 욕망에 따라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부인하려 하면서 권력을 행사

하는 자리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헛된 영광을 지향하게 된다고 보았다 (Augustine, 1992: XIV, 13).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교만한 자는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아니 거부하고 자기를 높이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다”고 말하면서, 교만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첫 인간의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자기와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기를 더 높이려는 교만이었다고 이해했다.

현대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는 어거스틴의 인죄론에 크게 영향을 받아 기독교 현실주의 윤리 사상을 전개했는데, 첫 인간의 원죄의 중심에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니버는 유명한 기포드 강연(Gifford Lectures)에서, “첫 인간은 교만으로, 즉 자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주관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이성적 사유를 하고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을 내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capacity)을 지닌 존재이자 동시에 '유한함(finiteness)', '의존성(dependence)', 그리고 '불충분함(insufficiency)'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Niebuhr, 1941: 150, 167). 따라서 인간은 뛰어난 피조물이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한계로 인해 불안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대처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한계와 의존성의 성격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겸손함과 경외감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의탁함으로써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Niebuhr, 1941: 167), 둘째는 자기 초월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유한함과 의존성을 벗어나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대하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길이 맡아 주관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다(Niebuhr, 1941: 185-186). 이 선택에서 첫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후자를 택했다. 이것이 원죄이

고, 그 핵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자이를 무한하게 확대하라는 것이었다고 니버는 해석한다. 인간 영역 너머에 있는 신비를 알아내어 자기 운명과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니버는 인간이 창조자에게 의존하고 그를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명령하고 주관하는 존재가 되려고 한 것이 교만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니버는 한 가지 덧붙이면서 인간이 지닌 유한성과 자기 초월성에서 오는 본래적 모순 때문에 인간이 '불가피하게' 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것이 개연적 원인은 되겠지만, 필연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께 계획에 따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한한 자원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삶보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주관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Niebuhr, 1941: 242). 결국 교만으로 인간은 쓴 열매를 먹게 되어 수많은 악과 고통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 1893-1957)는 교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교만을 조금 다르게 묘사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상상력, 지혜, 능력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표준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이라고 했다(Sayers, 1949: 82).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판사로 자처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즉, 교만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 셈이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 자이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에 스스로 앉아 자기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 이기에, 그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강조한 바처럼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  
 되 하나님의 기준(standards of God)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기  
 준(standards of man)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Augustine, 1992: XIV,  
 4). 이런 점에서 교만은 일종의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  
 르지 않다(Reno, 2006: 174-5). 교만이 다른 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  
 성격 때문이다. 이런 성격을 생각하면 루이스(C.S Lewis)가 “교만에 비교하  
 면 다른 죄들은 한갓 벼룩에 물린 자국(fleabite)과 같다”고 할 정도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했던 것이 수긍이 된다(Lewis, 2001: 94).

### III. 자기기만, 나르시즘, 그리고 관계 파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왜곡을 가져오고 동시에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철학자 제롬 뉴(Jerome Neu)는 이런 교만이 낳는 현  
 상을 소외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교만은 그 성격상 스스로를 참된 자아로부  
 터, 이웃과 사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결국 소외  
 (alienation)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Neu, 1999: 54).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  
 전에 기도하려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  
 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누가복음 18:9-14).

#### 1. 자기기만: 자기소외

교만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쭐거리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이 실제로 대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바,  
 자기기만(self-deception)의 성격을 갖고 있다. 칼빈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인간이란 늘 자기를 속이고 또 속으며 산다고 했다. 교만한 인간들은 도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스스로를 아주 도덕적인 자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성전에 기도하러간 바리새인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지극히 유리되어 있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11-12)”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의로운 자로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리새인은 사실 스스로를 기만한 셈이다. 당시 바리새인은 전형적으로 외식을 일삼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하며 욕심이 많은 자들이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기에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에 대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믿고 생각했을 뿐, 실제로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고 밝혀주셨다. 이처럼 교만하면 참된 자아와 소외되게 마련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도구로 '자기기만'이라는 기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교만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 쉘멜은 이에 관하여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동료가 연말 인사에서 승진하자 극도의 분노와 불안을 호소하며 찾아온 내담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쉘멜은 내담자에게 “왜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묻자, 내담자는 “자신이 자기 부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 이라고 대답했다. 쉘멜은 내담자와 함께 여러 날에 걸쳐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고 분석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게 된 내담자는 드디어 자신이 자신의 생각처럼 탁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인식이 분명해짐에 따라 내담자는 서서히 안정을 얻게 되었다. 자기의 분노의 원인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쉘멜은 이 사람의 분노의 원인은 교만 즉 자기를 부풀려 생각한 자기기만에 있었다고 진단했다(Schimmel, 1992: 28).

윤리학자 헬무트 티리케(Helmut Thielicke)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뉘그러지 못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부인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동기가 자기기만 현상에 깔려 있다고 보았다(Thielicke, 1956: 563).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란 '속이고 거짓 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예레미야 17:9). 교회 안에서 자기 그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분쟁을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책망했던 바울의 권고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고린도전서 3:13).

## 2. 나르시즘: 이웃과 소외

자기를 앞장세우고 높이는 교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서, 결국 공동체 생활에 지극히 피해를 입히게 마련이다. 당연히 교만한 사람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다. 이웃을 자기 아래에 두고, 자기 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로시 세이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분노, 정욕, 탐식, 나태'와 같은 죄를 뜨거운 마음의 죄로 보았고, 이것보다 차가운 마음으로 말미암는 죄인 '교만과 시기'를 예수님은 훨씬 신랄하게 비판하셨음을 상기시킨다(Sayers, 1949: 65). 교만과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 자기 기준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에 인색하게 된다. 별로 들을만한 내용이나 참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일쑤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시각에서 세리를 불의한 자로 판단해버렸다. 교만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실상보다 더 높고 고상하게 보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실상보다 훨씬 열등하고 나쁘게 왜곡해서 보는 악을 범하게 된다. 이 점에서 교만은 이웃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소외케 하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는 악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는 교만이 심화되면 나르시즘, 곧 자기 도취라는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자신의 지식, 판단력, 용모, 생활방식, 재능을 최고로 생각하니 그것에 스스로 반해버리고 그것에 도취되어 다른 것에 별 가치를 두지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연못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해 그 물에 뛰어 든 나르시즘이라는 소년처럼, 교만한 사람은 오로지 자신에게 빠지게 된다. 프로이드는 이런 나르시즘을 일종의 정신적인 병으로 간주했다.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면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기 보다는 점점 자기 안으로 머물러 그러한 삶을 즐기고 흡족해 한다(Lyman, 1989: 155). 자기 생각과 판단이 훨씬 탁월하고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와 의견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별로 들을만한 새로운 내용이나 참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르시즘에 빠지게 되면 점점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퇴각하고 그 안에 머물고 인주하기를 좋아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힘들어진다. 쌍방향적으로 대화하기 보다는 '자신을 믿고 따라 오라' 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 밖의 다른 계층의 문화나 사고 방식에 별 관심이 없고, 특히 가난하고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자기 스스로 갇혀 독선적이 되고 폐쇄적이 된다.

### 3. 하나님과 소외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만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모든 것 위에 올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루이스도(Lewis) 교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마음상태(the complete

anti-God state of mind)” 라고 간주했다(Lewi 2001: 94). 첫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해서 스스로를 주관하고 살기를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야고보서 4:6, 베드로전서 5:5).”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늘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경건하게 살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을만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게 한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자기기만으로 인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급기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

#### IV. 영적 교만: 가장 위험한 교만

카시안은 대죄의 목록을 육체적 죄(carnal sins)와 영적 죄(spiritual sins)로 나누었고, 그중 교만을 영적 죄로 분류했다. 카시안은 수도사가 오랜 수도와 훈련 끝에 육체에 속한 악들을 극복하게 되어도 교만이나 헛된 영광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육체적 악을 극복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만이 더 무섭다고 했다(Cassian, 1997: 193).

그런데 그레고리는 교만을 여러 종류의 교만으로 나누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교만이라고 했다. 그레고리는 여러 종류의 교만 가운데 영적 교만이 가장 해로운 죄악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화살'로 비유했다. 화살이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하지 못한다. 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날아와서 박히게 된다. 카시안은 영적인 교만은 경건과

윤리가 잘 갖춰진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죄라고 했다. 미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화살을 쏘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이다. 그레고리는 자기가 경건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영적 교만이 화살처럼 날아와 상처를 입히게 한다고 경고했다(Baasten, 1986: 44-45).

라인홀드 니버도 권력의 '교만(pride of power)', '지적 교만(pride of knowledge)', '도덕적 교만(pride of virtue)'과 영적 교만을 분류하며 다루었다(Niebuhr, 1941: 188). 니버에 따르면 도덕적 교만을 지닌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늘 비판하기 좋아하고, 만약 그들이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비난하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도덕적 교만은 아주 잔인한 성격을 지닌다. 자신에 대해서는 후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경향은 또 다른 '영적 교만'으로 진전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도덕적 탁월함을 종교적 성격으로 포장 하는 것이다. 자신의 도덕적인 것을 마치 종교적인 인물의 영성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Niebuhr, 1941: 2000). 이런 종교적 교만을 가진 그룹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열등하게 보고 무능하게 보게 마련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늘 자신의 말만 들어야 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니버는 신앙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지기 않기 위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경건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 바리새인들은 이의 전형적인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또 금식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교만을 찾아오면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국 자신을 섬기는 방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Sayers, 1949: 83). 자신이 경건하니 영적으로 사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영성을 바로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

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그마한 악들은 피했으나 가장 큰 악을 범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하면서 이 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조언을 일삼기도 한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온 교우에게 "당신은 기도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일을 통해 당신에게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진단하거나 조언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적절한 권고가 아닐 수 있다. 그 사람이 반드시 기도가 부족해서, 회개하지 않은 어떤 잘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한 고난과 고통이 그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세 친구는 매우 일반적인 신학적 조언을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오히려 해당하는 적절한 조언은 아니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것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그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 아는 듯이 조언하는 것은 주의하고 삼가야 한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상처만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 분 나라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한 진리를 숨기시고 오히려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1:25-27). 영적 교만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평범한 신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신자들이 어느 때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을 갖고 지내게 되는 그런 순간에 들어닥치기 쉽기에 늘 이에 대해 근신할 필요가 있다.

## V. 교만과 헛된 영광(vainglory)

고대 사막 수도사들 중에서 카시안과 에바그리우스는 교만과 함께 '헛된 영광(vainglory)' 도 나란히 독립된 대죄로 취급해왔다.<sup>4)</sup> 4세기부터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헛된 영광' 을 독립된 대죄로 가르쳐 왔었는데 이들은 유사한 듯 보이자 분명히 구분된다. 그렇기에 아퀴나스는 허영을 교만과 아울러 매우 자세히 그의 책에서 다루었다.

교만과 허영은 모두 다른 사람이 박수 받고 인정받는 것을 편하게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친구가 유명해지고 박수를 받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자기가 더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혹은 자기가 받아야 할 박수를 그 사람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다. 헛된 영광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 말할 수 있다. 즉, 이것의 강조점이 타인에게 있다. 자신이 뛰어나고 걸출한 덕목을 갖고 있거나, 어떤 탁월한 일을 했을 경우, 남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다. 마땅히 돌아와야 할 박수가 없게 되면 아주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교만은 자기를 뛰어난 자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으스댄다. 교만은 강조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조차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나 자기가 성취한 것에 평가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정확하게 평가를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영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

4) 4세기 수도사 에바그리우스와 그의 제자 카시안은 죄의 목록을 여덟가지로 전해 주었고,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는 교만을 독립시켜 일곱 대죄의 뿌리가 되는 죄로 취급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레고리 전통에 따라 그의 대죄 목록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아퀴나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일곱 대죄 중의 하나였던 헛된 영광(vainglory)은 교만 안으로 서서히 융합되어져 갔고, 현대 전해진 일곱 대죄의 목록에는 교만이 그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나, 교만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처럼 허영과 교만과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에바그리우스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께 성전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은 허영에 관련된 유혹이었다고 해석한다(Evagrius, 2003: 153). 이 시험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려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라는 유혹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이 제안을 거부했고 유혹을 당당히 물리쳤다는 것이다. 그는 “이 악은 어디든지 찾아들어 가기 때문에, 홀로 수련하는 독수도사, 혹은 은둔수도사(anchors or hermits)들조차도 이 유혹을 피하기는 힘들다” 고 했다(Evagrius, 162-163). 수도사가 비록 대죄에 해당하는 무수한 악과 싸워 이기게 되었을 때, 마귀는 최종적으로 수도사의 영혼 안으로 슬그머니 허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수도사가 신비 경험이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마귀는 수도사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라” 고 유혹한다는 것이다. 즉 인정과 박수를 받으라는 유혹이다.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사는 이 경우, 더 침묵하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문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했고 약간 초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곤 하기를 좋아했다.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외식(hypocrisy)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꾸짖으셨다. 사막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가 선한 일에 열심이고 영적인 진보를 나타낼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칭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하기는 지극히 힘들기 때문이다(Allen, 1997: 76).

그레고리는 “교만은 일곱 대죄를 낳고 모든 악의 근원이지만, 헛된 영광은 자랑함(boastfulness), 외식(hypocrisy), 논쟁(contentions), 완고함(obstinacies), 불화(discords), 그리고 고상한체 함(presumptions of novelties)과 같은 악들을 딸로

낳는다” 고 했다(Gregory, 1844: XXXI, 45. n. 88). 에바그리우스는 헛된 영광이 정욕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어와 가까이 하고자 하고 칭송을 하게 될 때, 대개 본인은 우쭐해져서 방자해지고 정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운동선수 등 소위 명망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자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VI. 자기실상 바로 보기와 거룩한 책읽기(Lectio Divina)

자신을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남을 무시하는 교만의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교만과 대응하는 '겸손'의 덕목을 갖출 방안은 무엇인가? 불교는 겸손을 하심(下心)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을 낮추려면 우선 백팔배와 삼천 배를 시작하도록 권고한다. 마음을 굴복시키기(屈心) 위해 먼저 무릎과 팔을 땅에 대고 온 몸을 지극히 낮추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현 모습에 대해 바르게 자각하는 것이다. 페어리의 주장에 따르면, 겸손의 기반은 진실에 있다. 그는 가려지고 부풀려진 모습이 아닌 실제 자신의 모습을 진실 되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다(Fairlie, 1989: 70).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칼빈은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첫째 인간은 타고난 교만 때문에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자신의 삶과 도덕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주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과 삶이 그것보다 '덜 악한 것' 이면, 곧 그것을 '깨끗한 것' 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의 덜 악함' 을 '의로움' 으로 생각하

며 스스로 만족해 버린다는 것이다(Calvin, 2003: I. I. 2). 사람들은 부패함으로 자신의 무지, 허망, 약함, 부패한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또 앎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은 결코 교만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한다(Calvin, 2003: II. 2. 11)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실상을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Calvin, 2003: I. 1. 2).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인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에 거짓으로 정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고 또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우리 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보고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불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울 앞에 비추인 자신의 부패를 볼 때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생각 때문에 한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Calvin, 2003: I. 2. 2; III. 22). 천상의 하나님의 어전 회의 광경을 본 이사야가 바로 그랬다. 그는 두려워하며 “화로다. 나는 망정하게 되었고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यो.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뵈었음이로다” 라고 고백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계시된 율법 즉 말씀을 통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

씀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위엄과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의를 보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율법은 우리의 불의를 보여주고 고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율법의 '책망적 용도(*usu elenchticus*)' 또는 '교육적 용도(*usus paedagogicus*)'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은 자신이 불의하고, 연약하고 무지하며,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게 되면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비로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드러내 놓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이 바로 겸손의 자리로 향하는 출발점이다.

중세 교회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누추함을 알고 방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소위 '렉치오 디비나(Lectio Divina)' 즉 거룩한 책읽기(divine reading)라 불리는 방식이다. 수도원들은 오랫동안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카시안은 수도사들에게 영적지식을 깊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Cassian, 1997: XIV). 그러나 이것을 수도원의 전통으로 공고히 만든 자는 성 베네딕트(St. Benedict, c. 480-547)라고 할 수 있다. 베네딕트는 공동기도(divine office), 거룩한 책읽기(divine reading), 그리고 노동(manual labour)을 수도원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확립했다. 그는 수도사들은 매일 혼자 따로 시간을 내어 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다. 공동기도 시간에도 시편을 함께 읽고 그것을 외우고 기도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동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Benedictus, 1991: 43장, 48장). 이를 통해 수도사의 하루 일과 중 상당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또 그 빈 곳에 하나

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는 작업을 꾸준히 반복했다.

수도사이거나 일반 신자이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이는 자신의 현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없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된다.

## VII. 자아 비우기와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신 모델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보게 되면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고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다. 이전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자신의 도덕, 지식, 도덕, 영성 등이 허찮은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이전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비우게 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전까지 자랑해오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이 자랑해 왔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구약 율법에 나오는 율의 친구들은 스스로 현자를 자처했기에, 율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들의 신학으로 율에게 충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율의 특수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정통적 신학에서 율을 판단하고 권면했다. 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기 판단과 양심으로 볼 때는 고난 받을 이유가 없었다. 억울했다. 변호사를 세워서라도 하나님과 법정에서 대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난 뒤 해소되었다(율기 39장). 율의 친구들과 율까지도 그들의 지혜가 지극히 제한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들 듣고 난 뒤 꾸중을 들은 것처럼 부끄러웠다. 지극히 일천한 자신들의 판단, 신학, 도덕, 의의 실상을 알게 되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

었다.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었다.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요한 하나님 앞에 노출됨으로 자신의 판단, 삶의 방식, 신학이 옳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미치지 못할 큰 일 즉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했다(시편 131:1). 이것이 비움이고 버림이다.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근신해야 할 노릇이다. 예를 들면 지구촌의 사람들은 개발과 진보라는 명목으로 땅과 자연을 개발하고 파헤치면서 실제로 생태계의 생물들과 생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는데, 이것이 정말 앞으로 인간에게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재앙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며,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할 때는 더 자연과 다른 공동체와 이웃의 견해를 존중하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종종 인간이 예측하고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곤 했다. 이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지혜, 힘, 판단이 형편없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점점 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게 된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전형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모델을 신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리스도들에게 이 모형을 따라 살 것을 제시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빌립보서 2:4-8).”

## VIII. 겸손의 훈련터로서 신자의 공동생활

오늘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의 덕을 형성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길은 무엇일까? 신자들이 어떤 신앙공동체에서 소속되어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물론 공동생활은 헌신이 전제된 공동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6세기의 성 베네딕트는 순종과 겸손을 수도사 영성의 정수로 제시했는데, 이를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사들이 따르고 준수해야 할 삶의 방식을 73가지로 만들어 가르쳤는데, 이것이 소위 '베네딕트 수도규칙'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는 이 규칙서의 첫 장에서 네 유형의 수도사들을 언급했다. 첫째는,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의 감독을 받고 규율을 따라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공동 수련하는 회수도사(會修道士 cenobites)이다. 둘째, 오랜 기간 수도원 생활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수련된 자들로서, 혼자 물러나 조용히 수련하는 은둔수도사(隱遁修道士 anchorites), 또는 독수도사(獨修道士)이다. 셋째, 한 번도 제대로 누구의 감독을 받으며 지내거나 규칙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홀로 또는 두 셋이 어울려 함께 수련하는 사라바이트(sarabaites)이다. 넷째,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수도원에서 며칠씩 머물며 수도하는 유랑 수도사(유랑수도사 gyrovagues)들이다. 그는 셋째 유형을 일컬어 수도사라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고 넷째 유형은 더 나쁜 유형의 무리들이라고 간주했다. 그는 규칙을 지키고 원장의 지도를 받는 공동 수도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회수도사를 건강하고 바람직한 수도사의 유형으로 간주했다(Benedictus, 1991: 1). 베네딕트는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악한 생각까지도 원장에게 고백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도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즉 수도원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수도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데 정말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뒤집어 말하면 혼자 지내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깨닫곤 한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서툰 행동에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자신이 남을 수용하기에 정말 부족한 자기중심적인 존재임을, 이런 공동 생활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

이 점에서 교회는 신자가 겸손해지게 되는 훌륭한 훈련터라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신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나 여전히 죄인들이다. 루이스(Lewis)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교만하지만, 신자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다고 했는데(Lewis, 2001: 196). 이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투거나 상처를 입기 십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더더욱, 이런 생활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을 배울 수 있다. 본 회퍼는 신자들이 함께 부름을 받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고, 복임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했고 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Bonhoeffer, 1954: 20-21).

교회는 인류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에베소서 2:14) 안에 사는 신자들의 모임이기에 평화를 도모하며 또 그 평화를 밖으로 전해주어야 하는 공동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나가도록 애써야 한다. 본 회퍼는 신자들 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지내든지, 함께 하기 싫은 자들을 물리치거나 그들을 떠나 외딴 곳에 은둔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하고, 심지어 원수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했다(Bonhoeffer, 1954: 18). 이것이 신자의 사명이자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이 더 낮아지고 죽어야 한다. 자기 의에 가득 차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고상하지 못하다 하며 심지어 정죄했던 자신의 모난 모습을, 처서 복종시키고 원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름 아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다. 신도의 공동생활을 통해 조금씩 이것을 배워나가야 한다.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고 헌신하게 되면 자신이 쓰고 있던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데니스 옥컬름(Dennis Okholm) 교수는 말한 바 있다(Okholm, 2007: 77). 진정으로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지체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알려져 있어야만 된다. 즉 가면으로 위장한 채 한 몸인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가면을 쓴 채로 하루, 이틀, 혹은 일 년 정도는 어떻게든 위장하며 지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격적이며 나누는 서로 엮어지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가면을 벗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옥컬름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도 드러내 놓고 고백하고 도움을 바라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했다. 자신이 가린 것, 자신이 부풀려 미화한 것, 다른 사람에게 의해 포장된 것을 한 겹, 두 겹 벗어내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겸손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성 베네딕트는 공동체가 번성해 가려면 서로가 가면을 벗고 자신을 정직히 드러내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참된 교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도사는 아빠스(Abbas)에게 자기의 욕망과 죄를 고백하고 상담하는 것을 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자신을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과 성화를 도와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공동체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한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서 서로를 자신처럼 대접하려고 애쓰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른 견해도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어 가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헌신해야 할 노릇이다.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 교만을 더 처서 다듬게 되고 동시에 조금씩 더 겸손을 체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IX. 결 론

성경은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인류가 실낙원의 비극을 맞게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다. 교회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잠언 16:18)”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겁게 생각하고 어떤 죄보다도 교만을 심각한 죄로 간주하면서 신자들에게 이것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뛰어난 자로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우쭐거리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자기가 상황을 주도하고 지배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 습관 자기 집단의 관습과 문화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 집단의 생각과 관습과 문화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도 점점 귀를 막게 된다. 급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다스리고자 한다. 이러니 하나님은 점점 배제되게 된다. 그러니 교만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빠지고 만족하게 된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만든 예술, 도구, 깨달은 지식 등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고양한다. 그러므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섬기는 것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베드로전서 5:5)은 교만이 지닌 이런 성격 때문이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될 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왜소함과 누추한 실상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보고서 드러나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이사야 6:6).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고 난 뒤 주님 앞에 와서 한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

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누가 5:8)” 이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성경은 인간의 누추함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된다. 또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공동 생활은 신자들이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좋은 훈련 방안이다.

## 참고 문헌

- Allen, Diogenes (1997), *Spiritual Theology: The Theology of Yesterday for Spiritual Help Today*; Boston: Cowley Publication.
- St. Augustine (1992), *City of God*, 김종흡 역, 『하나님의 도성』,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Aquinas, Thomas (2005), *On Evil*, Translated by Richard Reg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asten, Matthew (1986), *Pride According to Gregory The Great: A Study of the Moralia*,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 Benedictus, *Regula Benedicti*, 이형우 역주 (1991), 『수도규칙』, 왜관: 분도 출판사.
- Bonhoeffer, Dietrich (1954), *Life Together*; Translated by John W. Dohert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 Calvin, John (1960),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l, 원광역 역 (2003), 『기독교 강요』,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Cassian, John (1997), *John Cassian: The Conferences*, Translated and Annotated by Boniface Ramsey, O. P., New York: Newman Press.
- Dyson, Michael Eric (2004), *Pr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vagrius (2003), *Evagrius of Pontus: The Greek Ascetic Corpus*; Translated

-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Robert E. Sinkewicz,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irlie, Henry (1979), *The Seven Deadly Sins Today*, 이정석 역 (1989), 『현대의 일곱가지 죄』,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 Gregory (1844), *Morals on the Book of Job*, Translated by Henry Davis, Oxford: John Henry Parker.
- Lewis, C. S. (1943), *Mere Christianity*, 장경철, 이경태 역 (2001),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 Lyman, Stanford M (1989), *The Seven Deadly Sins: Society and Evil,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Dix Hills, N.Y.: General Halls, Inc.*
- May, William F. (1967), *A Catalogue of Sins: A Contemporary Examination of Christian Consci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Neu, Jerome (1999) "Pride and Identity," in *Wicked Pleasures: Meditation on the Seven "Deadly" Sins*, ed. Robert Solom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51-79.
- Niebuhr, Reinhold (1941),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Okholm, Dennis (2007), *Monk Habits for Everyday People: Benedictine Spirituality for Protestants*, Grand Rapids: Brazo Press.
- Reno, R.R., "Pride and Idolatry," *Interpretation*. 60(2), 166-180.
- Sayers, Dorothy L (1949), "The Other Six Other Sins," *Creed or Chao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63-85.
- Schimmel, Solomon (1992), *Seven Deadly Sins: Jewish, Christian and Classical Reflections on Human N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Thielicke, Helmut (1966), *Theological Ethics*, Vo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신원하 (2009), "일곱 대죄 기원과 역사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적 성찰" 『개혁신학과 교회』, 22호, 133-155.



ABSTRACT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A  
Christian Ethical Analysis of Pride.

Won ha Shin(Kosin University)

There is inherently ambiguity in pride in that it is associated on the one hand with self-esteem, self-respect, self-confidence, and on the other hand with conceit, arrogance, vanity. But in Christian tradition, pride has been always condemned as the greatest sin. Pride is not merely an excessive immoral self-esteem or something like that, but the evil desire to be like God, which is nothing less than idolatry.

By careful examination of biblical teachings and thoughts of great church fathers, desert fathers, and some great theologians such as Evagrius of Pontus(345-399), John Cassian(360-435), Augustine(354-430), St. Benedict (c.480-547), Gregory the Great (540-604), Calvin(1509-1564) and Reinhold Niebuhr(1892-1971).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pride could be identified such as self-deception, narcissism, It eventually breaks threefold relationship: real self, others, and God. themselves. Vainglory is a daughter of pride, but it is different from pride in that it's focus is more on other's praise and acknowledgement. However, pride's concern is more on its own self. The proud does not really care of other's opinion, but do of their own. They gradually withdraw

into themselves and eventually fail to communicate to larger society and people.

Nothing but humility can be accessible to God's favor. Humility brings about peace between I and You, God and real I. It begins by recognizing real self which is full of lust, cruelty, intolerance, etc. Lectio Divina and participating in communal life with full commitment in particular communities such as church help one to be humble.

Key Words: Pride, Capital Sin, Self-Deception, Narcissism, Reinhold Niebuhr, Humility